韓國人口學會誌 第九卷 第二號 (1986)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1986)

韓國과 臺灣의 主要 社會指標 比較考察
——人口指標를 中心으로——

韓 英 子·高 甲 錫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目 次〉

Ⅰ. 緖 論
Ⅱ. 經濟·社會指標 比較
Ⅲ. 人口指標比較
Ⅳ. 結 語

Ⅰ. 緖 論

韓國과 臺灣은 儒敎的 傳統과 漢字文化를 지닌 國家로서 다함께 2次 世界大戰 以前에는 數十年間 日本의 支配을 받았었으며 이 두 나라가 戰後에 新生 後進國으로 탄생하였다. 韓國과 臺灣이 分斷國이라는 立場은 비슷하나 그 過程이 약간 다를 뿐이다.

1949年 中國 本土에서 蔣介石 政府가 臺灣으로 옮긴 다음 1950年代 中半期에 들어와 社會的 安定을 되찾은 것과 韓國이 6·25 動亂으로 因한 混亂期를 거쳐 亦是 1950年代 中半期 以後 社會的 安定을 가져왔다는 事實은 時代的으로 퍽 類似한 點이 있다 하겠다.

더우기 이 두 나라는 그 當時 過剩人口 狀態에 있었으며 1960年의 두나라 人口密度는 世界的으로 首位圈을 다투었고 韓國이 1km²當 252名인데 비추어 臺灣은 300名 水準에 있어 莫上莫下의 人口高密度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過剩 高密度人口 條件 밑에 이 두 新生後進國은 戰後 復興計劃의 一環으로 貧困의 打破에 力點을 두는 施策을 펴기 시작하였다. 兩國이 開發戰略을 樹立하여 本格的으로 經濟開發을 서두른 것은 1960年代 以後이며 지금도 꾸준하게 개발정책을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表面的인 觀點에서 아주 類似한 面이 있다 하겠으나 두 나라가 類似하지 않은 一面이 있을 수 있다. 그 代表的인 한 例가 韓國과 臺灣의 氣候條件이다. 대만은 亞熱帶性 氣候이기 때문에 쌀 生産에 있어서 一年에 2~3毛作이 可能하지만 韓國은 溫帶性 氣候이고 그에 따라 쌀 收穫이 一年에 한번뿐이다.

本考에서는 韓國과 臺灣을 特히 平面的으로 보아 지난 四半世紀(1960~1985年) 동안의 發展經路를 主要 社會指標를 通해 簡略하게 比較해 보고 特히 人口指標를 보다 密度있게 考察해 보므로써 兩國의 類似性과 非類似性을 提示코자 한다.

이러한 類似指標提示는 그것이 含蓄하는 意味를 再吟味하게 되고 政策入案이나 資料使用에 있어 이 分野에 關心을 두는 人士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主要 經濟社會指標 比較

두 나라는 지난 四半世紀 동안 꾸준한 經濟成長으로 因해 中進國 水準에 到達하였으며 그것도 上位圈에 進入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은 人當 GNP에 있어 最近에 와서는 約 1,100$이라는 적지 않은 差異가 생겼다(表 1-1 參照).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1960年의 兩國의 人當 GNP가 150$ 未滿이었으나 臺灣은 韓國의 1.5倍나 높았고 이러한 傾向은 1985年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韓國이 겨우 2,000$ 水準을 上廻하고 있으나 臺灣은 3,000$ 水準을

Table 1-1. Per Capita Gross National Product: 1960~1985

平均國民所得 : 1960~1985 Unit : US $

Year	ROK	ROC
1960	80[1]	139
1965	105[2]	216
1970	248	387
1975	591	908
1980	1,605	2,080
1985	2,032[3]	3,131

Note: 1) The bank of Korea, *National Income in Korea*, 1978.
2)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0.
3) EPB, *6th 5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1986.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a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훨씬 넘었다. 亦是 臺灣의 人當 GNP는 韓國의 1.5倍 수준이다. 1960~1985年 期間을 5年 間隔으로 比較해 보면 韓國은 1975~1980年에 成長速度가 가장 빨랐던 것에 비추어 臺灣은 그 보다 5年 앞선 1970~1975年에 刮目할만한 成長을 이루었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臺灣은 1960年 當時 그 바탕에 있어 韓國보다 人當 GNP가 1.5倍나 높았다는 事實과 그 以後의 持續的인 成長이 오늘날 두나라 사이에 1,100$이라는 隔差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며 成長軌道에 있어서 두 나라의 差異點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韓國은 1960~1985年間에 人當 GNP가 25倍 增加하였으며 臺灣은 23倍가 增加하였다. 이러한 指標는 成長 倍加年數에 있어 特히 類似한 點이라 하겠다. 한편, 두 나라의 1960~1985年의 經濟成長率은 韓國이 13.8%이고 臺灣이 亦是 13.3%인 것으로 보아 高度成長이라는 範疇에 屬하며 25年이라는 期間을 考慮할 때 우연한 類似性의 一致는 多角度에서 吟味해야 할 課題라 하겠다.

또 다른 經濟指標로서 指摘할 것이 있다면 經濟活動 參加率이다. 表 1-2에 依하면 韓國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臺灣보다 낮아 類似性이 적다.

Table 1-2.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1965~1984

經濟活動 參加率과 失業率 : 1965~1984

Yea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	
	ROK	ROC	ROK	ROC
1960	NA	62.4	NA	4.0
1965	55.6[1]	58.2	7.4	3.3
1970	55.9	57.4	4.5	1.7
1975	56.5	58.2	4.1	2.4
1980	57.1	58.3	5.2	1.2
1984	53.9	59.5	3.8	2.4

Note : 1) EPB, *Social Indicatiors in Korea*, 1980.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Social Welfare Indicators of ROC*, 1985.

類似性(similarity) 自體의 定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經濟活動이나 失業率에서는 1~2% 差異가 엄청난 經濟效果 差異를 보여주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類似性이 적은 것으로 보았다. 特히 1984年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韓國과 臺灣 사이에 約 6%나 差異가 생기고 있다. 한편, 失業率을 보면 臺灣은 韓國보다 훨씬 낮다. 이 두개의 指標를 볼 때 韓國과 臺灣은 相當한 時間 隔差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韓國이 臺灣水準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시간이 所要될 것인지" 이에 對한 답변은 各種 經濟指標의 比較硏究를 通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은 그 나라의 經濟開發 여건과 함께 最善은 다했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그것은 아주 粗雜한 方法이지만 1960~1985年의 人當 GNP의 倍加年數와 그 동안의 經濟成長率이 臺灣과 크게 差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農家 非農家 人口를 比較해 보면 表 1-3과 같다.

表 1-3에 依하면 韓國은 臺灣보다 相對的으로 農業人口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非農業人口를 吸收하는 率은 韓國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韓國은 1965年에 全體人口의 59%가 農業人口이었으나 1984年에는 27%에 不過하였다. 그 差異는 32%이다. 臺灣은 1965~1985年에 45.4%에서 21.5%로 減少하여 그 差異가

Table 1-3. Proportion of Agricultural Population 1960~1985.

農業人口比率 : 1960~1985. (%)

Year	ROK	ROC
1960	NA	49.3
1965	58.6	45.4
1970	50.4	40.9
1975	45.9	34.7
1980	34.0	29.7
1985	27.1[1]	21.5

Note : Korean data includes the population of Foresty and Fishery.
1) Shows the data of 1984.

Source: (1) Park, Y.R., "Impact of Population Growth on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985, 8(1), p. 57.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Table 2. School Attending Rates: 1970~1984

就學率 : 1970~1984. (%)

Year	Primary School (6~11)		Middle School (12~14)		High School (15~17)	
	ROK	ROC	ROK	ROC	ROK	ROC
1970	102.4	99.4	57.0	66.6	30.5	41.5
1975	103.2	98.5	74.2	79.8	43.6	48.9
1980	101.0	98.9	94.6	87.4	68.5	56.9
1984	NA	99.5	NA	91.0	NA	67.1

Note : In the column of Primary School of ROK, figure showing over 100% may be due to age error between bitrh and school entrance.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 Development, *Social Welfare Indicators of ROC*, 1985.

約 24%에 이른다. 이 農家人口 構成比 指標는 1985年 現在 적지 않은 差異가 있으며 類似性이 적은 것으로 判斷된다. 그렇다면 이 非類似性과 함께 非農家口의 産業別 分布는 두 나라의 發展過程과 함께 注意 깊게 觀察해야 할 指標일듯 싶다.

社會指標 중 就學率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2에 依하면 國民學校 就學率은 韓國과 臺灣이 100%에 近接하고 있어 이 點에 있어서도 아주 類似하여 初等敎育을 忌避하는 傾向은 全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中學校에 있어서는 1970年의 臺灣 就學率이 67%인 것에 비추어 韓國은 57%에 不過해 約 10%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注目할만한 事實은 最近에 이를수록 韓國이 中學校就學率이 높아졌다는 事實이다.

高等學校 就學率은 1970年代에는 韓國이 臺灣보다 낮았으나 1980年代에 들어와 오히려 韓國이 臺灣보다 높다.

이러한 表面的인 指標는 韓國이 臺灣보다 高學歷 志向的인 選好性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生活水準(人當 GNP)이 낮음에도 不拘하고 就學率이 높다는 것은 그 非類似性을 吟味해볼만 하다. 敎育이 投資라는 意味로 받아들여질 때 그들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한다면 社會的인 浪費일수도 있다. 逆으로 高敎育人力 需要는 많지만 供給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後進性을 脫皮할 수 없고 特히 外國技術에 依存하게 된다. 어쨌든 韓國과 臺灣은 形式的인 就學率(高校)로만 따져볼때 類似性이 적은 것으로 判斷된다.

社會指標중 保健關係를 보면 表 3과 같다. 表 3에 依하면 醫師 1人當 人口數에 있어 1965年에는 韓國과 臺灣이 1900~2000名 線으로 類似한 面이 있다.

즉 1985年에 韓國이 1,284名이고 臺灣이 1,130名인 것으로 보아 큰 差異는 없다. 이렇게 差異

Table 3. Availability of Medical Care: 1960~1985

醫療人力 및 病床數 : 1960~1985.

Year	Population per physician		Population per hospital bed	
	ROK	ROC	ROK	ROC
1960	NA	1,661	NA	2,686
1965	2,095[1]	1,901	2,515[1]	2,851
1970	1,773	2,240	1,901	2,494
1975	1,801	1,492	1,633	526
1980	1,493	1,323	983	446
1985	1,284[2]	1,130	588[2]	270

Note :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0.
2) 1984 Value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가 적게 나타난 것은 人口增加樣相과 醫師養成數가 比率面에서 크게 差異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을 意味한다. 韓國이 지난 1965~1985年間에 醫師 1人當 人口를 800名 程度 줄였고 臺灣 亦是 줄인 數가 約 800名 線에 이르고 있어 아주 類似한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病床指標를 보면 1965年에는 病床當 人口에 있어 約 300名의 差異가 있었으며 1985年에도 비슷한 傾向을 보여 約 300名의 差異를 보여주는 指標를 提示해주고 있다. 이 指標 亦是 人口要素와 病床增加要素에 있어 앞에서 指摘한 人口對 醫師數와 類似한 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人當病床數에 있어 約 10年의 隔差를 보여주고 있다. 즉, 臺灣의 1975年 水準과 韓國의 1985年 水準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保健指標 즉, 醫師 1人當 人口數 그리고 病床當 人口數에 있어 5年 내지 10年의 隔差를 보여주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다만 두 指標의 改善速度에 있어 두나라가 特히 類似하다는 것을 指摘할 뿐이다.

Ⅲ. 人口指標 比較

1. 人口增加와 人口密度

지난 25年 동안 韓國과 臺灣은 人口가 꾸준하게 增加되어 왔다. 1960年에는 臺灣의 人口가 韓國人口의 43%인 것에 비추어 1985年에는 47%를 보이므로써 相對的으로 臺灣이 韓國보다 人口增加에 있어 速度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表 4 參照). 1960~1985年의 兩國人口의 增加狀況을 보면 韓國이 65%의 人口規模 팽창이 있었으나 臺灣은 78%가 增加하여 各各 2,500萬에서 4,100萬, 1,100萬에서 1,900萬 水準으로 增加하였다. 두 나라의 지난 25年間(1960~1985)의 平均人口成長率은 各各 2.0% 및 2.3%로서 아주 類似한 中進國型 人口增加 速度를 보였으며 最近 1985年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人口成長率(國際人口移動도 微細하게 作用)이 우연하게도 韓國과 臺灣은 同一水準이다.

人口密度를 보면 韓國과 臺灣은 1960年에 各各 1平方 km當 254名과 300名이었으나 1985年에는 414名과 535名을 나타내고 있어 韓國이 120名 程度 적다. 그러나 두 나라가 다같이 山林地帶가 많기 때문에 高密度인 것 만은 틀림없고 臺灣이 相對的으로 韓國보다 密度面에서 높을 뿐이다.

Table 4. Population Increase and Population Density: 1960~1985

人口增加 및 人口密度 : 1960~1985

Year	Population (1,000)		Growth Rate (%)		Population Density (Per Sq. Km)	
	ROK	ROC	ROK	ROC	ROK	ROC
1960	24,954	10,792	3.0	3.5	254	300
1965	28,705	12,628	2.6	3.0	292	351
1970	31,435	14,676	2.2	2.4	327	408
1975	34,679	16,150	1.7	1.9	357	449
1980	34,407	17,805	1.6	1.9	386	495
1985	41,056	19,258	1.3	1.3	414	535

Source: (1) MOSHA, *Data Book for Family Health Program*, 1986.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2. 出產力과 死亡力

1960~1985年의 人口動態率指標를 보면(表 5 參照) 1960年에는 韓國과 臺灣의 出生率이 40 水準에 있어 類似性이 짙고 死亡率은 韓國이 11水準임에 비추어 臺灣은 7로서 그 當時 臺灣의 人口增加率이 韓國보다 높다. 그러나 두 나라가 함

Table 5. Vital Statistics: 1960~1985

人口動態 統計 : 1960~1985

Year	CBR		CDR		NIR	
	ROK	ROC	ROK	ROC	ROK	ROC
1960	40.4[1)]	39.5	10.7[1)]	7.0	29.7[1)]	32.5
1965	34.3	32.7	8.8	5.5	25.5	27.2
1970	29.5	27.2	9.8	4.9	19.7	22.3
1975	24.6	23.0	7.3	4.7	17.3	18.3
1980	23.4	23.4	6.7	4.8	16.7	18.6
1985	19.7	18.0	6.2	4.8	12.5	13.2

Note : 1) 1961 Value
Source: (1) MOSHA, *Data Book for Family Health Program*, 1986.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께 典型的인 發展初期段階의 後進國 人口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出生率이 우연하게도 1980年에는 同一한 水準(23.4)을 보였음에도 不拘하고 1985年에는 約 2% 포인트의 差가 나고 있으며 1975年 以前의 出生率 下降速度가 類似하다는 事實을 觀察할 必要가 있다. 한편 死亡率에 있어서는 臺灣이 韓國보다 越等히 나은 條件에 있음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年齡構造의 影響을 微細하게 받겠지만 臺灣은 한결같이 低死亡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出生水準과는 달리 死亡水準은 類似性이 적고 死亡構造 내지 形態面에서 두 나라가 相異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 例로 嬰兒死亡率을 보면(表 6 參照) 1965年에 韓國과 臺灣은 52.7 및 30.7을 보여 주었고 1985年에는 32.6과 11.2를 示顯하였다. 두 나라 資料의 精度를 同一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현격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臺灣의 經驗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20年이 걸려야 臺灣水準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現象은 結果的으로 20年의 隔差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것처럼 指標의 正確性이 問題되겠지만 어쨌든 類似性 面에서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Table 6. Infant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1985

嬰兒死亡率과 平均壽命 : 1960~1985

Year	Infant Mortality Rate		Life Expectancy at Birth	
	ROK	ROC	ROK	ROC
1960	NA	42.2	NA	64.5
1965	52.7	30.7	61.9	67.3
1970	46.7	26.5	63.2	68.7
1975	41.4	23.8	NA	70.1
1980	36.8	21.7	65.9[1]	71.3
1985	32.6	8.0	68.0	72.4[2]

Note : 1) 1978 Value
2) 1984 Value

Source: (1) MOSHA, *Data Book for Family Health Program*, 1986.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Social Welfare Indicators of ROC*, 1985.

한편 兩國의 出生時의 平均壽命을 보면 大體로 韓國고 臺灣은 約 4~5歲의 差異가 나고 있다. 韓國이 平均壽命을 1歲 延長하는데 約 5年이 所要된다고 假定하면 여기에서도 嬰兒死亡率처럼 約 20年의 隔差가 벌어진다. 그러나 額面그대로 받아 드리기에는 問題가 있다 할지라도

Table 7.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and Total Fertility Rates: 1960~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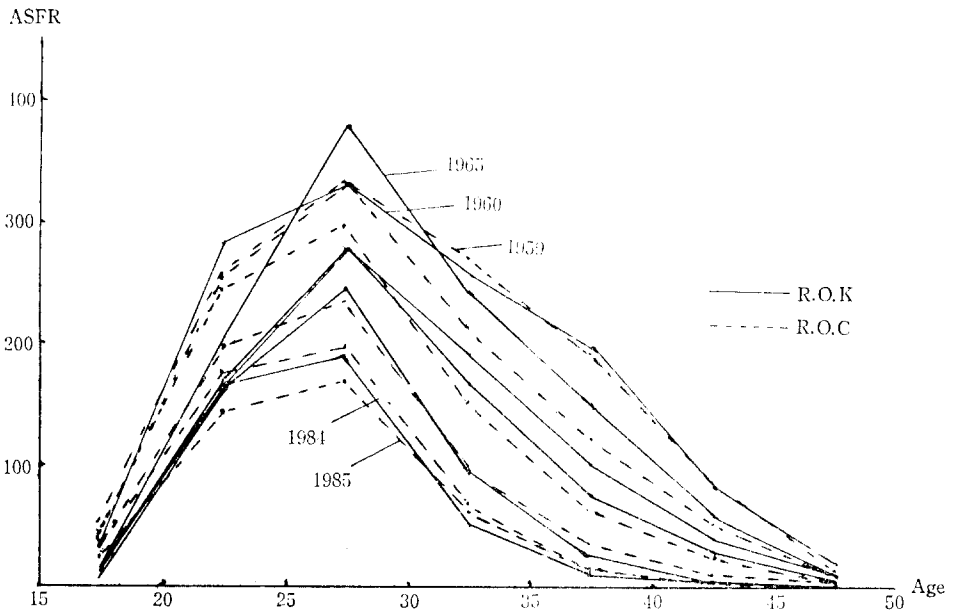
年齡別 出產率과 合計 出產率 : 1960~1985

Age	1960		1965		1970		1974		1981		1985	
	ROK	ROC[1]	ROK[2]	ROC[3]	ROK	ROC[4]	ROK	ROC	ROK	ROC	ROK[5]	ROC[6]
15~19	37	46	15	37	13	40	11	34	12	31	7	23
20~24	283	258	205	254	168	245	159	197	161	176	162	144
25~29	330	334	380	335	278	298	276	235	245	197	187	169
30~34	257	270	242	214	189	151	164	96	94	69	52	60
35~39	196	190	150	120	101	63	74	35	23	14	8	13
40~44	80	86	58	52	39	23	29	10	3	3	1	2
45~49	14	14	7	8	7	4	3	2	0	1	0	0
TFR	6.0	6.0	5.4	5.1	3.9	4.1	3.6	3.0	2.7	2.4	2.1	2.1

Note : 1) 1959 Value 2) 1966 Value
3) 1964 Value 4) 1969 Value 5) 1984 Values
6) Taken from the Paper of the Dr. T.H. Sun that was Presented at the ROK-ROC Conference on Population Projection, 1985.

Source: (1) MOSHA, *Data Book for Family Health Program*, 1986.
(2) Department of Health, Executive Yuan of ROC, *Family Planning Program*, 1983.

Fig. 1. Time Trend of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in ROK and ROC : 1960～1985
韓國과 臺灣의 年齡別 出産率의 趨勢 : 1960～1985



두 나라 사이에 적지않은 差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 다만 平均餘命에 크게 影響을 주는 嬰兒死亡率이 두 나라 모두 眞値에 가깝다는 前提下에서의 說明에 不過하다. 萬若에 韓國이 1985年의 경우 嬰兒死亡率이 16.3(半減)이고 臺灣이 11.2(公式統計는 8이었으나 40% inflate 시킨것임)라면 두 나라의 死亡水準이 적지않게 類似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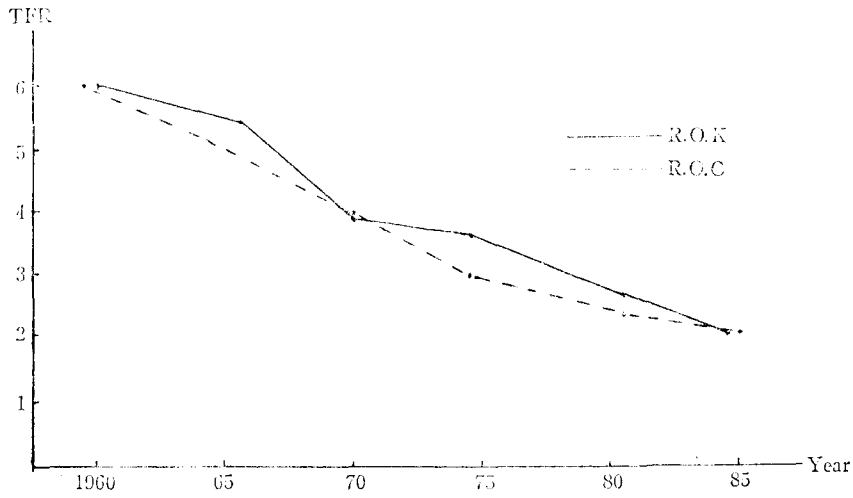
1960～1985年의 年齡別 出産率을 보면 表 7과 같다. 出産水準이나 形態를 比較的 正確히 나타낸 指標가 年齡別 出産率이다. 왜냐하면 女子의 年齡構造가 標準化되기 때문이다. 1960年의 두 나라 合計出産率은 6.0로서 同一한 水準이다. 形態面에서도 類似性이 아주 높다. 20～29歲層이 차지하는 構成比가 두 나라가 다함께 約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間接的으로 結婚頻度와 出生間隔이 비슷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1985年에는 韓國은 全體 出生의 87%를 20～29歲층에서 낳고 있는 것에 비추어 臺灣은 78%를 낳고 있다. 이러한 出産力 構造는 두나라가 1985年에 우연하게도 合計出産率이 同一水準임에도 不拘하고 이렇게 달라진 理由는 臺灣이 19歲 以下層과 30歲 以上의 年齡層에서 아직도 韓國보다 높은 水準의 出産力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出産力 構造를 보면(圖 1) 韓國은 25～29세의 出産率을 頂點으로 銳角을 이루고 있으며 臺灣도 마찬가지로 25～29세層이 出産率이 가장 높으나 그의 近接年齡層과 差異가 적어 比較的 鈍角을 이루고 있다.

한편, 年齡別 出産指標중 20～29歲層에서 臺灣은 韓國보다 낮고 그 外의 年齡階層 즉, 19歲 以下와 30歲 以上에서는 韓國보다 높다. 이러한 現象은 1960年 以後 두 나라 사이에 初婚(女性) 年齡의 差異가 생기고 避姙樣相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特히 合計出産率(表 7 및 圖 2)의 低下樣相을 보면 두나라가 아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出産力이 人口 代置水準인 2.1 水準에 이르는 過程에서 韓國의 低下 速度는 65～70年에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臺灣은 65～75年에 10年間 持續的으로 빠르게 低下하고 있다. 그러나 1975年 以後의 下降速度는 兩國이 同一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趨勢로 出産力이 低下하면 두 나라는 將來出産力에 있어서도 거의 同一水準을 維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Time Trend of Total Fertility Rates in ROK and ROC: 1960~1985
韓國과 臺灣의 合計 出産率의 趨勢 : 1960~1985



3. 人口 構造

지난 25年間(1960~1985)에 人口規模가 크게 늘어나 韓國은 65% 臺灣은 78%가 팽창하였다. 이러한 人口成長은 人口動態率(出生, 死亡, 國際移動)의 結果라 하겠지만 人口構造(表 8)에도 影響을 주고 있다. 즉, 1960年의 韓國 人口構造는 0~14歲층이 43%인 것에 비추어 臺灣은 45%를 示顯하므로써 類似性을 보이고 있다. 한편, 65歲以上 人口에 있어서도 韓國이 3.3%인 것에 비추어 臺灣은 2.5%이다. 微細하나마 韓國이 老化指數面에서 若干 높으나 類似性이 높다 하겠다.

1985年의 人口構成比 亦是 0~14歲에 있어 韓國과 臺灣은 우연하게도 1% 미만의 差異밖에 안 보이고 있다. 韓國이 約 31%, 臺灣이 30%를 示顯하므로써 좋은 對照를 이룬다. 더욱이 生産年齡(15~64歲人口)의 構成比는 1960年에 韓國이 54%이고 臺灣이 53%이다. 1985年에는 두 나라가 모두 65%線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5歲 以上의 老年人口 構成比는 臺灣이 더 빨리 높아지고 있음을 提示한다. 이러한 現象은 臺灣이 韓國보다 死亡率이 相對的으로 낮기 때문이다.

어쨌든 두나라의 人口構造는 1960~1985年 사이에 類似性이 아주 많다. 그러므로 將來人口도 거의 비슷한 趨勢로 人口가 成長할 可能性이 充

Table 8.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1960~1985
人口의 年齡構造 : 1960~1985

(%)

Year	0~14		15~64		65+	
	ROK	ROC	ROK	ROC	ROK	ROC
1960	42.9	45.4	53.8	52.1	3.3	2.5
1965	43.5[1)]	44.9	53.2[1)]	52.5	3.3[1)]	2.6
1970	42.1	39.6	54.6	57.4	3.3	3.0
1975	38.1	35.3	58.4	61.2	3.5	3.5
1980	33.8	32.1	62.3	63.6	3.9	4.3
1985	30.6[2)]	29.6	65.2[2)]	65.3	4.2[2)]	5.1

Note : 1) 1966 Value
2) Taken from the KIPH Population Projection data.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Table 9. Dependency Ratios and Index of Aging: 1960～1985

扶養費와 老齡化果數 : 1960～1985

Year	Child Dependency Ratio		Aged Dependency Ratio		Total Dependency Ratio		Aging Index	
	ROK	ROC	ROK	ROC	ROK	ROC	ROK	ROC
1960	79.9	87.3	6.1	4.8	86.0	92	7.7	5.5
1965	81.6[1]	85.5	6.2[1]	5.1	87.9[1]	90.6	7.6[1]	5.9
1970	77.2	69.1	6.1	5.1	83.2	74.2	7.8	7.4
1975	65.2	57.7	6.0	5.7	71.1	63.4	9.1	9.9
1980	54.3	50.4	6.2	6.7	60.5	57.2	11.4	13.3
1985	46.9[2]	45.2	6.5[2]	7.7	53.4[2]	53.0	13.9[2]	17.1

Note : 1) 1966 Value
2) Taken from the KIPH Population Projection data.

Source: (1) EPB,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5.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分히 있다 하겠다.

人口構造에 의거 扶養負擔을 보면(表 9) 韓國이 臺灣보다 1960年에는 微細하나마 낮았으나 1985年에는 우연하게도 同一 水準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 扶養負擔을 嬰幼兒(0～4歲) 및 老年(65歲 以上)으로 區分하여 觀察하면 若干의 差는 볼 수 있다. 特히 老化指標를 보면 臺灣이 韓國보다 1980年代 들어와 조금 빨리 進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9 參照).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것처럼 두 나라는 扶養負擔에 있어 높는 類似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老化指數의 差는 別다른 意味를 갖지 못한다.

4. 將來人口

앞에서 韓國과 臺灣의 人口指標중 人口增加, 出產力과 死亡力, 그리고 人口構造 等을 살펴보았다. 大體로 위 세가지 큰 人口指標가 類似性에 있어 아주 近接하다는 것을 考察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두 나라 人口展望 亦是 異變이 없는 限 類似性이 높을 것으로 豫測된다. 表 10에 依하면 1985年의 韓國人口는 그 40年 以後에 約 28%가 增加하여 4,100萬 水準에서 5,300萬 水準으로 增加한다. 臺灣은 1985年의 約 1,900萬 人口가 2025年에는 2,500萬으로 增加하게 되어 이 40년 동안에 31%가 增加하게 된다. 韓國과 臺灣의 人口規模 增加幅이 向後 40年間에 아주 微細한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表 10의 人口成長率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國際移出入이 없다고 假定하면 두 나라의 人口 增加幅은 훨씬 近接할 것이다. 왜냐하면 量的으로는 적으나 韓國은 移出超過 假定을 세운데 反해 臺灣은 移民을 假定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人口規模는 1985～2025年 사이에 各各 平均的으로 0.62%(韓國)와 0.68%(臺灣)의 成長率을 示顯할 것이며 이 水準은 現在의 西歐社會 人口 增加率과 맞먹는다. 그러므로 韓國과 臺灣은 이미 1985年을 起點으로 人口轉換이 終了되었으며 앞으로는 徐徐히 老年人口 過程에 접어들게 된다.

두 나라 人口展望중 우연하게도 2015年에 出生率이 同一水準이고 2000에는 死亡率이 同一水準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人口自然增加率을 살펴보면 韓國은 "零의 成長"이 2020～2025年 사이에 達成(成就)되지만 臺灣은 아마 2025～2030年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差異는 人口動態率의 假定에서 差가 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臺灣의 死亡力이 繼續해서 낮고 그에 따른 微細한 年齡構造 特히 老年人口 構成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人口展望에 따른 두 나라의 人口 構造를 考察하면 表 11과 같다. 表 11에 依하면 韓國의 0～14歲 人口構成比는 1985년의 31%에서 2025年에 17%로 減少한다. 한편 臺灣 亦是 同期間중 30%에서 17%로 減少하고 있어 類似性面에서 거의 一致하고 있다. 15～64歲 生產年齡人口는 韓國

Table 10. Population Projection based on Medium Variant: 1985~2025

中位推計 : 1985~2025

Year	Population(1,000)		CBR		CDR		RG	
	ROK	ROC	ROK	ROC	ROK	ROC	ROK[1]	ROC
1985	41,056	19,135	19.7	18.0	6.2	4.8	12.5	13.2
1990	43,601	20,357	18.0	16.9	5.8	5.3	11.3	11.7
1995	45,962	21,434	16.0	15.2	5.8	5.7	9.4	9.4
2000	48,017	22,384	14.7	14.4	6.2	6.2	7.7	8.3
2005	49,710	23,263	13.4	13.9	6.8	6.7	5.9	7.3
2010	51,028	24,005	12.7	12.9	7.6	7.4	4.3	5.6
2015	51,963	24,552	11.9	11.9	8.6	8.0	2.6	3.8
2020	52,473	24,907	11.3	11.1	9.6	8.9	1.0	2.3
2025	52,574	25,084	11.0	10.8	10.3	9.9	−0.5	0.9

Note : 1) based on the emigration assumption
Source: Based on the paper presented at the ROK-ROC conference on population projection, 1986.

Table 11. Age Structure of the Projected Population: 1985~2025

推計人口의 年齡構造 : 1985~2025

Year	Age group						Dependency Ratios						Aging index	
	0~14		15~64		65+		Child		Aged		Total			
	ROK	ROC	ROK	ROC	ROK	ROC	ROK	ROC	ROK	ROC	ROK	ROC	ROK	ROC
1985	30.6	29.9	65.2	65.2	4.2	5.0	46.9	45.8	5.4	7.6	53.3	53.4	11.5	16.6
1990	27.2	27.5	68.1	66.4	4.7	6.1	39.9	41.5	6.8	9.1	46.8	50.6	17.0	22.0
1995	25.2	24.4	69.6	68.3	5.2	7.3	36.2	35.8	7.5	10.7	43.7	46.5	20.7	30.0
2000	23.0	22.0	70.8	69.7	6.2	8.2	32.5	31.6	8.7	11.8	41.3	43.4	26.8	37.3
2005	21.3	20.8	71.3	70.3	7.4	9.0	29.9	29.6	10.4	12.8	40.3	42.4	34.8	43.2
2010	19.8	19.8	71.8	70.7	8.4	9.5	27.6	28.0	11.7	13.5	39.3	41.5	42.4	48.1
2015	18.6	18.9	72.0	70.6	9.4	10.5	25.8	26.8	13.1	14.9	38.9	41.7	50.8	55.5
2020	17.6	17.8	71.4	69.1	11.0	13.1	24.6	25.8	15.4	18.9	40.0	44.7	62.6	73.4
2025	16.9	16.8	69.4	67.3	13.7	15.9	24.4	25.0	19.7	23.6	44.1	48.6	80.7	94.4

Source: Based on the paper presented at the ROK-ROC conference on population projection, 1986.

과 臺灣이 서로 65%(1985年)인 것이 2025年에는 各各 69%와 67%를 示顯하고 있다. 여기에서 微細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은 臺灣이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1960年代 以後 死亡力이 낮아 人口老化 指數面에서 조금 老齡人口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은 65歲 以上 人口의 構成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韓國은 1985年에 4.2%이었으나 2025年에는 13.7%로 增加한 反面 臺灣은 1985年의 5.0%에서 2025年에는 15.9%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바로 老化指標에서 보여 주듯이 韓國이 1985年의 11.5%에서 2025年의 80.7%인 것에 비추어 臺灣은 16.6%에서 94.4%로 增加하게 된다.

扶養負擔을 보면 指標面에서 韓國과 臺灣은 1985年에 거의 同一水準이다. 그러나 扶養內容에 있어 韓國은 0~14歲 年少人口가 많은 대신 臺灣은 65歲 以上의 老年人口가 相對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25年에는 扶養指標가 韓國이 44%이고 臺灣이 49%이어서 約 5%의

差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앞에서 指摘했듯이 臺灣의 低死亡率이 累積的인 效果로 나타난 結果라고 하겠으며 韓國과의 隔差는 5~10年 程度에 不過하다.

5. 家族計劃指標

家族計劃 普及은 두 나라 모두 人口政策의 主된 課題로서 지나 4半世紀동안 꾸준히 推進되었다. 그 結果 韓國과 臺灣은 2次 世界大戰 以後 都市國家(싱가폴, 香港)를 除外하고는 처음으로 低出產을 實現한 開途國의 成功事例라 하겠다. 出產規範과 出產行態에 있어 이렇게 빨리 先進國 水準에 到達하였다는 것은 家族計劃이 하나의 社會運動으로서 國民과 政府가 그의 定着을 위해 强한 共感帶를 이루었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2.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Use Rate of Contraception: 1965~1985

理想子女數와 避妊實踐率 : 1965~1985

Year	Ideal Number of Children		Use Rate of contraception (%)	
	ROK	ROC	ROK	ROC
1965	NA	3.9	16	NA
1970	3.1[1]	3.5	25[2]	44[2]
1975	2.8[3]	2.9	44[3]	61[4]
1980	2.7[5]	2.8	55[6]	70[7]
1985	2.0	NA	70	74[8]

Note : 1) 1973 value 2) 1971 value
3) 1976 value 4) 1977 value
5) 1978 value 6) 1979 value
7) 1981 value 8) 1984 value
Denominator of the ROK value was 15~44 currenthy married women and that of ROC was 20~39 currenthy married women.

Source: (1) MOSHA, *Data Book for Family Health Program*, 1986.
(2) *Special Issue for tenth Anniversary of Taiwan Provo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1985.
(3) Nortman, D.L. et 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s*, A population council fact book, 9th ed., 1978.
(4) Nortman, D.L. et al., op. cit., 10th ed., 1980.
(5) Nortman, D.L. et al., op. cit., 11th ed., 1982.
(6) Nortman, D.L. et al., op. cit., 12th ed., 1985.

兩國의 家族計劃 指標를 紹介하면 表 12와 같다.

表 12에 依하면 두나라의 資料가 直接 比較하기에는 問題가 있지만 1970年代의 3名 水準의 理想子女數가 이제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2名 水準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臺灣이 韓國보다 若干 높은 傾向이 있다. 一般的으로 西歐社會에서는 理想子女數가 實際子女數에 比해 約 20%쯤 낮은 傾向이 있고 逆으로 高出產地域에서는 20%쯤 높은 傾向에 있음을 考慮할 때 앞에서 考察한 出產力低下 推移는 當然한 過程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理想子女數가 低下할수록 出產力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의 分水嶺은 2名線의 理想子女數이다.

理想子女數의 低下는 바로 家族計劃의 促進내지는 普遍化 現象이다. 表 1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韓國이나 臺灣은 實踐率이 70%를 上廻하고 있다. 이는 完全히 先進國 水準의 指標에 進入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 다만 同一한 避妊實踐 水準이라 할찌라도 避妊目的이나 效果에 따라 出產力에 微細한 差異가 일어날 뿐이다. 더욱이 韓國은 避妊效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不願妊娠에 對해서 그것을 人工流產으로 終結할 수 있는 手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出產力推移는 더 下降할 展望이다. 이러한 事情은 臺灣亦是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1984年 以後 臺灣도 優生保護法을 制定하여 人工流產의 許用範圍를 넓혀 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두나라는 家族計劃指標面에서 時差가 若干 있으나 70% 水準의 實踐率을 成就하는데 적어도 20年이라는 歲月이 必要했으며 이것이 1980年代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주 類似한 點이라 하겠다.

Ⅳ. 結 語

韓國과 臺灣은 社會·經濟的으로 開途國의 上位圈에 있다는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具體的으로 어떤 要素들이 가장 類似性이 많으며 또 非類似性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對해 比較해 보는것도 意義가 있다.

本稿는 制限的으로 몇가지 主要指標를 간단하게 比較하였고 特히 人口指標의 類似性을 綿密하게 考察하였다.

大體로 모든 人口指標가 類似性이 높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注目할 만한 類似指標는; 첫째로 두나라가 1980年代 中半에 人口 變遷(population transition)을 完成했다는 事實이다. 즉, 1985年에 韓國과 臺灣이 純再生產率에 있어 1.0 以下를 記錄했다는 指標이다. 둘째로 向後의 人口增加展望에서 韓國과 臺灣이 西紀 2025年 頃에 零의 成長을 達成하게 된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人口推移는 두나라의 他分野 즉 社會·經濟分野의 發展展望에서 늘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韓國과 臺灣은 西紀 2020年 以後 老化指標가 急速度로 上昇하게 된다는 類似性이다. 따라서 이 問題에 關한 限 그의 對策이 長期的인 眼目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相互間 政策構想과 展開에 對해 參考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지난 四半世紀(1960~1985년)동안 두나라 政府가 각기 家族計劃事業을 推進한 結果 類例없이 低出產 實現에 成功하였다. 그러므로 두나라는 過去나 現在 그리고 未來의 事業推進 戰略과 手段에서 難兄 難第의 立場에 있으며 이는 出產力과 家族計劃 指標가 充分히 說明해주고 있다. 實際로 家族計劃事業 推進方式에 있어 特히 管理·評價側面에서도 結果指標 못지않게 類似性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類似性이 가장 적었던 人口指標는 死亡水準과 死亡構造였다. 特히 韓國이 臺灣보다 훨씬 높은 嬰兒死亡率을 가졌던 것과 平均壽命이 4~5歲나 낮다는 事實은 指標自體의 正確性과 함께 吟味해 볼만한 課題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死亡水準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 分野의 基礎硏究가 活潑히 進行되어야할 것 같다.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과 臺灣은 人口指標에서 類似性이 많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따라서 韓國과 臺灣은 人口政策의 形成 및 執行에 있어 보다 더 緊密한 交流를 通해 서로가 協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0.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5.

保健社會部, 家族保健事業參考資料, 1986.

韓國人口保健硏究院,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1982.

韓國人口保健硏究院,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1985.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_____, Paper Presented at ROK-ROC Conference on Population Projection, 1986.

_____, *Special issue for tenth Anniversary of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1985.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Social Welfare Indicators of ROC*, 1985.

Department of Health, Executive Yuan of ROC, *Family Planning Program*, 1983.

Nortmam, D.L. et 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s, A population council Fact Book*, 9th ed. 1978.

Nortman, D.L. et al., op. cit., 10th ed. 1980.

Nortman, D.L. et al., op. cit., 11th ed. 1982.

Nortman, D.L. et al., op. cit., 12th ed. 198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major social indicators focusing on the population between Korea and Taiwan

Han, Young Ja* · Koh, Kap Suk**

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major social indicators between Korea and Taiwan particularly focusing on population because two countries share close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and have access to the advanced level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Similarities or dissimilaritie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ers and the policy makers of the two countries by giving them insight on the situation.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demography and social indicat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imilarity indicators can be found in fertility.

   One of them is Net Reproduction Rate and it was less than one in both countries in 1985.

   The past trend of fertility, in fact level and pattern of it, of the two countries from 1960 to 1985 has been very similar.
2. Level and pattern of mortality is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Mortality level of Taiwan is lower than that of Korea.
3. The close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was shown in population structure and aging index.
4. On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level and pattern of fertility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During fourty years, the period from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rate which is a little more than 1% to the zero growth rate,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0.6% and that is similar to those of the current industrializ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medium variant of the projection, Korean population will reach Zero Growth Rate between 2020 and 2025 whereas Taiwan between 2025 and 2030.
5. Current level of contraceptive prevalence of both countries is very similar showing above 70% of the eligible women in 1985 and one of the valuable factors of achieving this high rate within short period must be the national program of the family planning.

A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opulation policy formu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is indispensable because Korea and Taiwan have similarity in many population indicators.

* Researcher, KIPH
** Senior Researcher, KIPH